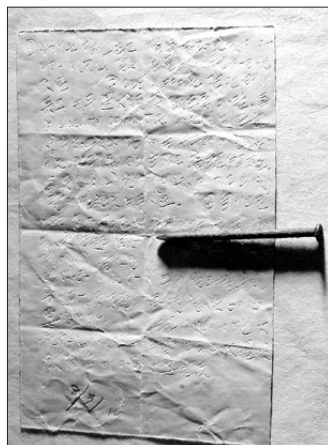


못으로 쓴 DJ '감옥 병동 서신' 공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감옥 병동'에 수감됐을 당시 간수 등의 감시를 피해 몰래 못으로 쓴 편지의 원본이 최초로 공개됐다. <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성재 관장)은 8일 도서관 1층에서 김 전 대통령이 쓴 옥중서신 44통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709통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진주교도소(8통)와 서울대병원 병동(36통)에 수감됐을 당시 이 여사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고, 특히 병원에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검종이나 과자 포장지에 못으로 눌러 쓴 편지를 이 여사에게 은밀히 전달했다.

이 편지에는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방향과 전략,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도서관 측은 몰래 작성된 편지를 이희호 여사가 양말이나 속옷 속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와 민주화 인사들과 돌려줬다고 설명

했다. 이번엔 공개된 서신은 1977년 진주교도소와 80년대 이후 청주교도소에서 작성된 편지와 함께 '옥중서신 1, 2'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김대중도서관에도 원본이 전시될 예정이다.

'옥중서신 1'은 1984년 발간된 '김대중 옥중서신'을 새롭게 개정한 책이며 '옥중서신 2'는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들을 엮었다.

한편, 도서관 측은 이번엔 공개한 편지를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도서관 로비에 전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장 나서는 야 의원들

8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 뒤 정회되자 야당 안민석(원곡)간사와 김영진 의원 등이 감사장을 나사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 뒤 정회되자 야당 안민석(원곡)간사와 김영진 의원 등이 감사장을 나사고 있다. /연남뉴스

“지방소비세 부작용 적극 따져라”

■ 국감 5일째... 부각시켜야 할 지역현안은

광역경제권 설정 5+3으로 개정해야 쌀 직불금 인상·매입량 확대 요구도

지난 5일 시작된 국회의 국경감사가 여야의 공방 속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철저한 감사와 공조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수 야당인 지역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국경감사는 정부측에 지역의 현실을 설명, 지원을 촉구하고 부작용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번 국감에서 지역 정치권이 정부가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소비지수가 낮은 광주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 등 경제적 불균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교부세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광주와 전남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가중치 부여 기준을 현재의 100~300%에서 5단계 이상으로 높이고 지자체의 낙후도와 재정자립도 등을 가중치 부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강운태 의원과 행정안전부의 최인기, 이윤석 의원 등이 공조체제를 구축, 기재부와 행안위 국경감사에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5+2 광역경제권 설정=영남 2개 권역, 호남 1개 권역으로 설정된 '5+2 광역경제권' 시행령 개정에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5+2로 되어 있는 광역경제권을 호남권에서 전북을 따로 떼

어내 5+3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의 주승용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과 주호영 수석원내대표가 5+3 광역경제권 설정에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지경부 측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쌀 대책=지난해 40kg에 5만2천원 원 정도였던 쌀 값이 올해 4만5천원 수준까지 급락, 전남지역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쌀값 보전 대책 마련은 이번 국감에서 지역 정치권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당장 농민들은 쌀 직불금 가격 인상과 정부의 매입량 확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식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농식품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은 공공비축매입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지원했던 40만 규모의 쌀을 정부가 양곡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 정부가 조기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경제권 구성과 관련, 국토해양위의 이용섭 의원이 KTX 호남~제주 구간을 위한 해저 터널 사업 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통계청 인력부족 지역통계 작성 불가능”

김효석 의원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8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된 통계청의 인력으로 지역통계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지자체에 있는 통계 관련 인력들이 작성한 통계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이처럼 지역 통계가 부실하게 될 경우 국가 전체의 통계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지자체의 행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해져 이에 따른 부



담은 지자체 주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조사를 직접 하고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것이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여타의 제약조건 등을 감안할 때 꼭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행정자료 등을 통한 통계 통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방용 기구 609종 내구연한 없이 유통”

최인기 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8일 배포한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각종 시설물에 화재예방용으로 설치되는 소방용기구·기구 609종이 소방방재청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 내구연한(내용연수)도 없이 시설물 소방감사시 검사용으로 장식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유사시 화재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소방방재청



은 지난 2007년 1월 소방용 기구·기구 등의 사용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정해 소방시설의 성능 유지와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목적으로 ‘소방용 기구·기구 등의 내용연수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또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이 건설업계의 힘에 밀려 법안 제정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령속 일본식 용어·표현 정비해야”

우윤근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광양)은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식 용어와 표현이 우리 법령 속 곳곳에 남아 있다”며 시급한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식 용어인 '기타(其他)'는 우리말인 '그 밖의(에)'로 고쳐져야 하고, 부(父)와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남편, 아내로 표현해야 한다”며 “주격조사 '~이/~



가'가 붙어야 할 자리에 잘못된 '~의'를 사용하는 일본 문법을 사용한 민법 제 29조의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로, 제26조의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은 '제69조의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로 각각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머·풍자도 유분수지...

선관위 홍보책자에 교육현장 비하 글 논란

광주시선관위위원회가 발간한 선거 홍보용 소책자에 교육현장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머글이 실려 교육계가 발끈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쉽고 재미있는 선거이야기’라는 70쪽 분량의 홍보용 소책자 7천부를 발행해 공공기관 민원실과 병·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했다.

하지만 이 책자에는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의 교육현장을 경시하는 유머글이 실려있다.

책자 32쪽 ‘웃으며 삼시다’라는 코너에 실린 ‘연구수업’이라는 제목의 유머는 초등학교 연구수업을 참관하던 장학사가 학생과 교사, 교장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장학사가 ‘지구

본이 왜 기울어져 있는지’ 묻자, 학생은 ‘제가 안 그랬는데요’, 교사는 ‘그거 사올 때부터 그랬는데요’, 교장은 ‘국산이 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학교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같이 씁쓸하다”며 “하지만 아무리 우스갯소리지만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홍보 책자에 교육기관을 경시하는 내용의 글을 실은 것은 경솔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어떤 의도도 담겨있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통합반 하루9시간 강의

기능직특채 찍어주기 "하루특강"

한빛고시의 합격시스템

개강 11.2

한빛소방지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공주 북구행일 234-9234